신군부, 5·18 북한 소행 조작 미국 속였다

팀 셔록 미국 정부 기밀문서 분석…신군부 왜곡 내용 보니

"군중들 쇠파이프 들고 시위 동참 위협·인민재판 열어 처형"
"폭도들, 시민에게도 쏘아댔다"며 호도…미국은 묵인·방조

미국 저널리스트 팀 셔록이 밝혀낸 미국 정부 기밀문서를 살펴보면, 문서 곳곳에서 5·18광주민중항쟁이 왜곡됐다.

'문서번호 DOD ; DIA RTS-2B(합참 참모부 메시지센터)'는 1980년 5월21일 광주상황이 담겨있다. 보고서에는 '18시30분 광주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보고와 함께 '세무서와 관공서들을 파괴한 폭도들은 인질을 붙잡고 있다'고 왜곡했다. 이어 '폭도들은 예비군 무기고에서 소총과 탄약을 탈취했고, 대부분의 사상자들은 폭도들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광주시민은 인질을 붙잡고 있지도 않았고, 이날 낮 1시께 공수부대가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시위하는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CIA 국내외국평가센터'가 만든 'CIA 문서'에는 '광주에서 이틀간의 대규모 폭동이 오늘 완벽한 내란으로 바뀌었음. 직접적인 원인은 야당지도자 김대중의 체포에서 비롯되었음.'이라고 기록했다.

하지만 내란은 광주시민이 아니라 전두환 등 신군부가 정권찬탈을 위해 일으킨 것이다. 그들은 계엄확대와 공포정치가 필요했고, 그 희생양을 광주로 삼은 것이다.

5월27일자 '국방부(MND) 정보보고서'에는 '군중들이 쇠파이프, 몽둥이를 들고 각 집을 돌며 시위에 동참하지 않으면 집에 불 질러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폭도들이 초등학생들까지 동원하기 위해 강제로 차에 태워 길거리로 끌고 나왔다'고 적혀 있다.

이는 신군부가 한미연합사의 미국 쪽 군사정보통에게 제공한 정보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폭도들이 전투경찰에게 무차별 사격. 격앙된 분위기를 가라앉히려는 시민들에게조차 쏘아댐. 군중을 향해 쏠 기관총을 설치했다"고도 쓰여 있다. 이어 '300명의 좌익수 수감돼 있는 교도소를 군중들이 공격했다'며 '폭도들이 지하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일었음'고 5·18민중항쟁을 마치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인 것처럼 몰아갔다.

이에 대해 5·18연구소 관계자는 "5월27일 도청이 진압된 뒤 폭도들 수백 명이 무등산 기슭으로 도망가 항전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도청 앞 광장에서 폭도들이 인민재판을 열어 사람들을 처형하고 있다는 등 신군부가 만들어 퍼트린 소문이 마치 광주 시위가 공산주의자 또는 북한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했다"며 "이는 미국이 '즉각 소탕해야 한다'는 신군부의 논리를 강화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간첩의 개입을 조작하는 보고들이 계속됐다. '5월22일 15시 시위대가 5명의 의심스러운 군 첩자(2명의 여성 포함), 그들은 너무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군중들 속에서 선동하였음', '5월23일 06시15분 서울역 근처, 북한 간첩 한명 마치 서울 시민인 것처럼 위장, 그는 간첩 전라도를 통해 5월20일 침투' 등이다.

기밀문서를 공개한 셔록은 "보고서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폭도'라는 단어가 나온다"며 "이러한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며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모든 정보들을 보면 미국은 1980년 5월22일 백악관 회의에서 항쟁을 끝내기 위해 군부대(20사단)를 사용하도록 결정했다"며 "개인적으로 이 결정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최악의 실수다"고 자신의 소견을 밝혔다.

이어 "전두환이 한국군 진압을 위해 북한과 싸우기 위해 훈련된 특수부대를 동원했음에도 미 정부는 광주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전두환과 쿠데타 지도자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믿었다"며 "미국은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짓을 했다"고 덧붙였다.

셔록은 "정보공개법에 의해 30년이 지나 이미 기밀이 해제된 미국 측 문서를 요청한 후 이를 분석해 5·18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한국의 경우 중요한 문서가 이미 폐기됐거나 왜곡된 상태다. 이를 보완할 중요한 문서가 미국에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광주시나 문재인 정부가 요청한다면 이 자료가 공개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체로키 파일' 공개로 미국의 5·18 개입 밝혀내
당시 참상 지구촌 알려…광주시 명예시민 위촉

팀 셔록은 누구

팀 셔록(Timothy Scott Shorrock)은 1951년 5월 미국 워싱턴에서 태어났다. 그는 30년간 미국외교정책 및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고 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미국 주간지 '더 네이션(The Nation)'의 미국국가안보정착 정기 기고자로 활동중이다.

1950년대 한국에서 성장한 팀 셔록은 지난 1980년대 미국 저널 오브 커머스 기자로 광주에 와 5·18 민중항쟁의 참상을 취재했다. 그는 이후 미국정부를 상대로 5·18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 입수했다.

팀 셔록은 지난 2015년 5월 광주항쟁의 진실을 밝히고 세계에 널리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시 명예시민으로 위촉됐다. 그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들과 전두환 신군부 사이에 오간 비밀 전문인 이른바 '체로키(Cherokee) 파일'을 공개해 당시 미국의 5·18민주화운동 개입 전략을 밝혀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팀 셔록은 지난 4월10일부터 광주에 머물면서 자신이 기증한 체로키 파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사건 일자와 시간대별 분류 및 정리, 문서 해제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1월 광주시에 체로키 파일 등 미 국방부와 중앙정보부의 5·18 관련 3530쪽 분량 59개의 기밀 문서를 기증했다.

/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전남대 사범대 벽화 '광주민중항쟁도' 복원
1990년 5·18 10주년 때 그려
리얼리즘 참여미술 생생한 기록

전남대 사범대학 건물 외벽에는 '시민군이 총을 번쩍 치켜들고 있는' 벽화가 그려져 있다. 부당한 국가 폭력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엄혹했던 군부독재 시절, '민족해방'이라는 깃발을 들고 분연히 일어선 광주시민들의 모습과 가마솥에 밥을 지어 주먹밥을 나눠주던 시장 상인들의 모습도 담겨 있다. 바로 '광주민중항쟁도'다. 〈사진〉

1990년 6월, 5·18 광주민중항쟁 10주년을 맞아 전남대 학생들이 그린 대형 벽화로, 전남대 학생운동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작품이다.

당시 광주민중항쟁도(가로 10×세로 16m)는 5·18 10주년을 맞아 전남대 그림패 '마당', 예술대학 미술패 '신바람', 사범대 미술교육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벽그림 추진위원회'가 주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27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벽화 곳곳의 페인트가 벗겨지고 훼손되면서 원색의 역동적인 색상도 많이 바랜 상태다.

전남대 민주동우회가 퇴색한 벽화 복원에 나선다. 5월 광주를 다룬 첫 벽화로 전남대 역사, 전남대 학생운동의 상징적인 작품이라는 점에서다. 미술사적으로도 1980년 광주 민중항쟁을 계기로 치열하게 전개됐던 한국 리얼리즘 참여 미술의 생생한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주동우회는 이같은 점을 감안, 당시 참여 학생들을 비롯해 추진위원 1000명을 모집하고 복원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2400만원의 복원 예산은 자발적인 기부로 마련하고 8월 19일부터 채색 작업을 시작, 9월 2일 제막식을 갖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고의 교통사고 조폭 낀 보험사기단 60명 적발

신호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조직폭력배와 택시기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조직폭력배 11명과 택시기사 7명 등 60명을 적발했다. 이 중 조직폭력배 A씨(36)와 B씨(23), 택시기사 C씨(22)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5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광주 도심에서 자가용과 렌터카, 택시 등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으로 총 47차례에 걸쳐 보험금 3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불법 유턴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이 많은 새벽시간 충장로와 상무지구 등을 범행 장소로 택했고, 전조등을 끄고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범행 시 5명이 탑승했고, 인원이 부족할 때는 허위로 동승자 수를 부풀렸다. 고가의 외국산 타이어휠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해 보험사로부터 고액의 수리비를 챙겼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한적한 도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고 보험사에 협박성 민원을 꾸준히 제기, 보험금 외에도 고액의 합의금까지 가로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방독면 착용 연습

'광주 북구 민방위 경진대회'에 참가할 지역 민방위대원들이 24일 북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강사와 함께 방독면 착용 실전 연습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5·18…37년전 오늘 어떤 일이

질서 회복 돋보인 시민정신
도청 최후 항쟁지도부 결성

해방 나흘째인 5월25일, 광주는 빠르게 질서를 회복해갔다. 시장과 상점들은 문을 열었고, 경운기에 실려온 채소가 공급됐다. 슈퍼마켓과 구멍가게에서는 사는 쪽이나 파는 쪽 모두 사재기를 방지하려 노력했다. 담배는 1인당 한갑씩만 팔았다. 병원에서는 처음 며칠간 갑자기 밀려든 부상자들 때문에 피가 모자라 곤란을 겪었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헌혈하려는 시민들이 몰려 피가 남아돌았다.

해방기간 광주시내 범죄발생률은 평상시 정부가 치안을 유지할 때보다 훨씬 낮았다. 행정과 치안 관청의 기능이 멈춘 가운데서 보여준 시민들의 높은 도덕적 자율성은 피로 찾은 자유와 해방을 지키려는 긍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외국 기자들은 질서정연한 시민들의 생활을 목격하고 놀라워했다. 김수환 추기경은 메시지와 함께 구호대책비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밤 수습위원회 온건파는 모두 전남도청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밤 10시, 최후까지 싸우려는 항쟁지도부가 결성됐다. '민주투쟁위원회'다.

앞서 계엄군은 '상무충정작전'으로 불리는 광주소탕작전을 확정했다. 작전 개시는 '5월27일 0시1분 이후'로 결정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같은 병실 입원 환자 지갑 슬쩍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의 지갑을 손댄 50대 남성이 경찰서행.

○…24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왼쪽 팔과 다리 등에 나타난 마비증세로 병원에 입원 중인 A(52)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께 자신이 입원 중인 광주시 남구 진월동 A한방병원 2층 6인실 병실에서 함께 입원 치료중인 B(57)씨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B씨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현금 15만원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B씨의 지갑에서 총 50만원을 훔친 혐의.

○…경찰관계자는"A씨가 오랫동안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해 오다 최근에 뇌졸중에 걸려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혀를 끌끌. /김한영기자 young@

동구 수기동 상가매매

20층 중 6층(45평)
▣ 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주차 완비
▣ 보 1천만–월 70만

▶ 시세 1억6천
매가 1억1천(융5천)

영광 전원주택 매매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깔끔 / 주차 완비

▶ 매가 1억 (융 2천)

상무지구 상가 매매

▣ 10층 중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상무지구 중심상업내
▣ 보 500만 월 44만

▶ 매가 8천만

010-7384-7800

평택 전문

① 전원주택 토지 투자자 모집

송탄 터미널 5분
총 1,700평

전망 최고 / 전원주택 강력 추천!!

(선착순) – 평당 150만

② 개발부지 (271평) 코너자리

송탄역 5분 – 송탄 터미널 1분
위치최고 / 분양 최고

▶ 매가 35억 →개발시 순수익 70억 !!

③ 평택 초역세권 (개발부지)–53평

송탄역 1분 (코너자리)

위치 최고 분양 최고

▶ 매가 6억6천 → 개발시 순수익 15억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근린시설)
토 1183, 건 6780평
▶ 감정가 190억 → 최저가 85억

▣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원룸)
토지 83평, 건 145평
▶ 감정가 60억 → 최저가 42억

▣ 동구 대인동 (4층 상가 주택)
토 128평, 건 250평
월세 약 300만 가능 (4층 주택)
▶ 감정가 8억8천 → 최저가 8억8천

▣ 남구 서동 (상가 주택)
토 78평 , 건114평
1층(상가), 2층(원룸), 3층(주택)
월수익 300만 예상
▶ 감정가 5억2천 → 5억2천

▣ 전북 부안군 변산면 (숙박시설)
토 506평, 건 430 평
대명리조트 10분거리
▶ 감정가 16억→ 최저가 4억5천

구분 상가(소액) 물건 추천

1. 서구 치평동 (근린상가)
토 68평 ,건 87평 (실평수), 월세 100만원
▶ 감정가 2억4,600만 → 최저가 1억3천7백

2. 북구 신안동 (오피스텔)
토 65평 건 145평, 분양평수 9평
▶ 감정가 2천3백 → 최저가 2백1십만원

3. 동구 학동 (아파트 상가)
학동 중심사역 1분/대단위 아파트 밀집 상가, 실평수20평
▶ 감정가 7천9백 → 최저가 5천5백

4. 광산구 장덕동 (7층 중 2층 상가)
건 40평, 수완지구 대방노블랜드 후문(코너)
▶ 감정가 3억8천 → 최저가 2억6,500만

5. 남구 백운동 589–14 (근린주택 3층건물)
토 65평, 건 145평, 월세 250예상
▶ 감정가 3억→ 최저가 1억7천

6. 상무지구4층상가
전용면적19평, 월세 120예상
▶ 2억6천→1억2천

7. 상무지구4층상가
전용면적 39평, 월세 240예상
▶ 5억4천→2억4천

※ 반값경매, 특수물건, NPL(다수있음) ※

① 경매교육 (기초반)
▶ 매주 10시 30분
경매기초부터 ~ 입찰까지

② 경매교육 (실전,투자반)
실전 교육듣고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강의

직원모집
경매 부동산 같이 하실분
서구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텔
(상무지구 한국은행,현대아파트 사이)

아파트경매물건 추천
▶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레빌 (분양면적 33평)
감정가 2억6천 → 최저가 1억8천
▶ 광산구 선암동 선운모아엘가 (분양면적 33평)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 서구 쌍촌동 청연위드힐타운 (분양면적 17평)
감정가 1억5천 → 최저가 2억4천

010-7384-7800 010-2699-5300